6행시 우수작 소개

☑ 게시 순서는 무작위

서*아 / 010-6372-**

위안부를 꼭 기억하세요
안일한 판단으로 그분들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부끄럽지않습니다 아프지만 우리의 역사니까요
기억하고 보존하고 사과 받아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눈을 못감으셨을 할머니들
일본의 사죄를 꼭 받아 낼게요.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여*영 / 010-9412-**

위로와 지지를 보냅니다.
안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부족한 역사 인식때문에
기림일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의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일상의 삶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주 / 010-9209-**

위안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안전하지 못했던 그때 그 절망스럽던 시절이
부디 잊으시기 힘든 기억이겠지만
기원드릴게요. 더이상 아프시지 않도록
임에게도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런 기억을
일일이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언젠가 그들이 사죄할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박*경 / 010-2635-**

위에 있는 태양을
안보이게 손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고 없던 일이라고 우기는 일본아!
기가 차고 억울하지만 위안부일을 전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가진 우리 세대는
일본을 상대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김*화 / 010-9412-**

위로로 그치기 보다는
안타까움 보다는
부르짖는 목소리들을 기억하고
기울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임하게 될 평화를 위해
일어나 함께 외치고 연대해야 할 때, 바로 지금.

정*슬 / 010-5586--**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지 못한 세월
부단히도 외로웠던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야
임을 기리는 날이 찾아왔네요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위안부 아닌 할머니들 이름을 애절하게 불러봅니다. 살아주셔서, 용기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 / 010-5499-**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안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상처를 따뜻하게 품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이 어느덧 거칠어지고, 주름이 패여갈수록
기껏해야 여기밖에 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럽지만
임의가 아닌 협의로,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딛고 더 멀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행복을
향해 더 높이.

김*빈 / 010-5338-**

위안부라 손가락질 대신 잘 있느냐 괜찮으냐란
안부 한마디만 물어주었다면 피해자인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서 힘들어하지도 미쳐나가지도 죽어나가지도
않았을 것을...
임종에 깨닫는 슬픔과 아쉬움과 후회를 한 순간의 감정
이라 여기지 말고!
일본은 그저 역사라 묻으려 하나, 우린 그 역사 속 잔인
한 성폭력과 살인 피해자임을 후손들은 잊지 말고 이날
을 꼭 기억해다오

차*호 / 010-6868-**

위안부 기림일은 무엇일까
안일했던 거 같다
부모님께 한번쯤 물어볼 걸
기다리다 못해
님들과 함께 늦게나마 이제
일어나야 할 순간이다

이*미 / 010-4661-**

위안부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들어 보셨다구요?
부디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념일이 되었으니까요:) 국가 기념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소녀상을 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8월 14일. 잊지 맙시다!

김*정 / 010-7660-**

위로를 보내기 위한 이날
안심하며 이제는 편하게 쉬길 바라는 이날
부디 모두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리는 마음으로
임하길 바라며 지정한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김*아 / 010-3023-**

위안부 기림일을 아시나요?
안다면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모른다면 이제라도
아셔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8월 14일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맙시다.
일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하고 평생 반성하십시오.

권*주 / 010-4030-**

위로해주며 안아주고픈 영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봅니다.
부모형제를 떠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간 그곳에서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일들을 겪고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갖은 고초를 다 이겨낸 귀한 영들
일본의 사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그 영들이
편히 눈감도록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보상하라

김*형 / 010-7279-**

위안부 기림일을 기억합니다
안분지족하며 살 수도 없던 당시 상황
부자가 되려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현실에 처했을까요
기억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다
임하는 매분 매초마다 그 아픔이 떠오릅니다
일제의 사과, 받아내야 할 숙제입니다

이*순 / 010-3944-**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역사이기에 일어선 것입니다.
임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입니다.
일생을 통해 다시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기에
온몸으로 알리고 알릴 것입니다.

이*균 / 010-5045-**

'위안부'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부디 몸 건강 하시고 할머니 힘드셨던 일 꼭
기억할게요
임향한 기림 영원할게요. 그 마음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세요

이*선 / 010-7140-**

위안부문제에 아직도 진정된 사과를 하지않는 일본!
안중근 의사도 지하에서 얼마나 분개하고 계실까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하길 바라면서
기념일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아베가 부디 참회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정*화 / 010-4144-**

위안부라는 꼬리표같은 이름이
안녕이라는 가벼운 인사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죄명을 주었고, 살고 싶어
기사회생 끝에 살아왔음에도
임종조차 편치 못하였다
일본은 들으라, 부끄러움은 가해자인 너희의 몫! 우린 피해자이자 그 증거다. 묻지 마라~ 잊지 마라~

김*영 / 010-2571-**

위기와 전쟁 속에서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죠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이
기나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님들의 삶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아니예요
일본의 진정한 참회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래 / 010-2257-**

위안부라는 아픈 과거는
안일하게 잊혀져서는 안되며,
부족한 마음이라도
기꺼이 모아
임종하시기 전
일본의 사과를 꼭 듣게 해드리고 싶습니다.